

인터뷰 이동원 전국 대학생투자동아리 연합회(UIC) 회장

“캠퍼스 투어 확대 등 자생 가능한 지방 네트워크 구축”

호남권 첫 당선...무박 3일 대회 등 구상 “지방 주식 투자환경 기반 활성화 기대”

“지방에서는 제대로 된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어려운 현실. 그럴 바깥보고 싶습니다.” 전국 대학생 투자동아리 연합회(UIC) 이동원 회장(24)의 말이다. 전국 53개 대학, 68개 투자 동아리를 잇는 UIC는 출범 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권에서 회장이 당선됐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동아리 운영’을 넘어, 지역 간 기회의 격차로 향하고 있었다.

전남대학생인 이 회장의 투자 여정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했다. 코로나19 시기, 고등학교 3학년이던 그는 주식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의 흐름 속에서 시장을 접했고, 스스로를 ‘동학개미운동 베이비’라고 부른다.

그는 처음 주식을 접할 때 기업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가치 투자 형식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목표 주가를 맞추는 희열과 수익에 자신의 노력과 보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기업을 분석하는 ‘리서치’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다. 리서치 공모전에 나가기도 하면서 한 기업을 이

해하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실제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데이터를 쌓았다. 단순히 보고서를 읽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표하면서 그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격했다.

리서치는 책상 위에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체감한 것이다.

그의 투자 철학은 자연스럽게 가치투자로 이어졌다.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그는 꾸준히 연 12%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며, 리서치 기반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전남대 투자 동아리에 발을 들이고 UIC를 알게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됐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보니 자신의 실력보다 지방의 학생은 못한다는 편견이 지배적인 것이 안타까



이동원 대학생 투자동아리 연합회(UIC) 회장은 UIC는 출범 후 19년만에 처음으로 호남권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웠다. 이 회장은 “증권사에서 열리는 모의투자 대회에서 서울권 대학들이 팀으로 나올 때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고 어떤 학습 엔진이 구축돼 있어서 들어가지만 해도 트레이딩 능력이 좋아지는 건지 궁금했다”며 “한 증권사의 서포터즈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UIC 호남권 지부장을 맡았을 당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네트워크의 격차였다. 서울에서는 어렵지 않게 성사되는 강연 하나가 지방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학은 이미 예전부터 UIC 이외에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활동 자체가 스펙이 되고, 그 네트워크가 곧 기회로 연결된다.

그는 지방에서는 같은 노력을 해도 체감되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동아리 활동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특히 호남권에는 지역 기반 증권사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다.

이 차이는 참여도에서도 드러난다. 다른 지역에서는 취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몰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동기 부여가 약한 편이다.

회장을 결심한 이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지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는 UIC를 진정한 전국 투자 동아리 연합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에서도 자생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행사를 기획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동과 섭외 과정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서울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증권사의 문을 두드렸고 각종 정기 행사나 캠퍼스 투어 같은 기업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에서 무박 3일 대회 등 특별한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이다.

다만 우려도 있다. 투자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왜 사느냐’라는 것이다.

인터뷰 말미, 그는 대학생들에게 경험과 기록 두 가지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학점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경험이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하고 기록을 남기면 그게 자산이 된다”고 전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희망 전하는 월드비전 ‘글로벌 6K’, 광주서 첫걸음

광주제일교회 성도 600명 참여...후원금 1700만원 모금 가나 판테이크 마을 등 식수위생사업 지원...“나눔 가치”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식수 지원 캠페인 ‘2026 Global 6K for Water’가 광주에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본부장 정병원)는 최근 광주제일교회에서 성도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Global 6K for Water’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Global 6K for Water’는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걸어야 하는 평균 거리인 6km를 참가자들이 직접 걸거나 달리며 물 부족의 현실을 체험하고 식수위생사업을 후원하는 월드비전의 대표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 광주전 일대 6km 코스를 함께 걸으며 물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코스 곳곳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2km 지점에서는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를 작성하며 매일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돌아봤고, 4km 지점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며 깨끗한 물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희망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약 1700만 원은 전역 아프리카 가나 판테이크 마을의 식수위생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식수시설 구축과 위생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권대현 광주제일교회 위임목사는 “이번 행사는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는 최근 광주제일교회에서 성도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Global 6K for Water’를 개최했다.

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걸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원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장은 “광주제일교회 행사는 올해 전국적으로



광주기독병원선교회는 최근 전남 신안군 장산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광주기독병원, 장산도 주민 대상 의료봉사 전개 내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 등 주민 150명 건강 살펴

광주기독병원선교회는 최근 전남 신안군 장산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장산면사무소와 다수 교회를 비롯한 지역 교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병원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총 29명(자원봉사자 5명 포함)이 참여했으며, 봉사단은 목포항에서 배로 약 1시간 30분을 이동해 장산도를 찾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내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진료료 비롯해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심전

도검사, X-ray 촬영, 물리치료, 영양 상담, 발열치유, 미용봉사 등을 진행, 주민 150명의 건강을 살펴보았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 지역 주민들은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X-ray 촬영 등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귀worthy 선교회장은 “섬 지역 주민들은 지리적 여건상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단순 진료와 후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광산구 도산동 남동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운영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광산구 도산동 남동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보살보협 무료 가입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행복채움금융교실은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NH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

고, 의심 전화나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인 ‘N-돌핀’이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상담을 진행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임철현 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지난해 140회 실시한 금융교육을 올해는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광주 전역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최근 장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26 해외 한국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장흥군, 중학교 2학년 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3박4일 일정...중국 상해서 나라사랑 의미 기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장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26 해외 한국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글로벌 역사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흥군과 장흥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교육복지 확대와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탐방은 중학교 2학년 학생 241명과 인솔교사 24명 등 총 265명이 2팀으로 나눠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각각 3박 4일 일정으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중국 상해와 가흥 일원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김구 선생 피난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등 주요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며 독립운동 정신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정홍=정명수 기자 jms050311@

영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 여수서 특별한 하루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유월드 체험활동 등 참여

영암군청소년센터는 최근 여수시 일원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거를 잇다, 미래를 가꾸다’를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와 미래를 탐색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운영하는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진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경험했다. 또 포레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견문을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 부스



를 경험할 수 있어 재미있었고, 여러분과의 직업과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영암군청소년센터는 앞으로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